주담대 금리만 2개월째 상승…가계와 기업대출 금리 하락

"금리 더 낮은 보금자리론 취급 규모 축소+단기지표금리 하락"

대기업 대출금리, 단기지표금리 하락 · 고금리대출 비중축소 등 영향

지난 2월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평균금리가 전월 대비 0.01%p 오르며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만 오르는 현상은 지난 1월에 이어 2개월째다. 한은은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보금자리론의 취급 비중이 축소된 영향으로 봤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0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90%로 전월대비 0.05%p 하락했다. 단기지표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COFIX(대상월기준, 신규)는 지난 1월 연 1.54%에서 지난달 1.43%로 0.11%p 내렸다.

2019년 가계대출 금리는 5월(연 3.49%)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8월(2.92%) 저점을 찍었다. 이후 9월(3.02%) 상승 전환했지만 다시 내림세를 보이며 11월(2.96%)부터 2%대를 유지 중이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 금리는 전월대비 0.01%p 오른 연 2.52%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연 2.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보금자리론 취급 규모가 줄면서 주담대 금리는 상승했고, 보증(-0.11%p) 및 일반신용(-0.13%p) 대출금리가 코픽스(신규) 하락의 영향으로 내리면서 가계대출금리는 전월대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7월(2.64%)과 8월(2.47%) 두 달 연속 통계편제 이후 최저치를 경신한 이후 소폭 상승했다가 10월(2.50%)부터 다시 하락했다. 같은해 11월과 12월(2.45%)에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바 있다.

가계대출 중 보증대출 금리는 연 3.02%로 전월대비 0.11%p 내렸다.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금리는 연 4.49%로 전월과 보합이었고, 예적금 담보대출과 집단대출(연 2.93%), 일반 신용대출(3.70%)은 전월대비 각각 0.08%p, 0.13%p 하락했다.

기업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11%p 내린 연 3.08%를 기록했다. 이중 대기업 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0.16%p 하락한 연 2.96%,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13%p 떨어진 3.35%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 대출금리는 단기지표금리 하락, 고금리 대출 비중축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마찬가지로 단기지표금리 하락 영향을 받았고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영향도 컸다"고 설명했다.

기업 단기지표금리인 지난 1월 CD(91일물) 금리는 연 1.47%에서 2월 1.42%로 0.05%p 내렸다. 은행채(AAA, 6개월) 금리도 1월 연 1.43%에서 2월 1.31%로 0.12%p 하락했다.

2월 예금은행의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전월대비 0.10%p 하락한 연 1.43%였으며, 시장형금융상품은0.11%p 하락해 연 1.46%를 나타났다. 두 항목을 합친 저축성 수신평균 금리는 0.11%p 내려 연 1.43%를 기록했다.

신봉우 기자

코로나 고용쇼크 '취업자 감소' 눈앞…2월 음식숙박 5.3만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 '고용쇼크'로 2월 음식숙박점업 종사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만3000명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 확산이 2월 말에 본격화했음에도 전체 종사자 수 증가폭은 절반 넘게 대폭 깎였다. 이달인 3월에는 전체 종사자 수의 '감소 전환'이 유력시된다.

외환·금융위기 등 종전 경제위기 상황에 가까운 고용절벽이 현실화한 모습이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0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4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1832만5000명) 대비 16만3000명(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사자 증가율 0.9%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치다. 고용부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고용부문 집계를 시작한 2009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5%대를 기록하던 증가율이 최근 2년새 1.7% 정도로 낮아진 적은 있지만, 절대적인 증가폭 자체는 쭉 30만명 내외를 유지해 왔다.

이에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사업체노동력조사 브리핑을 주재하면서 "최근 30만명 내외의 종사자 수 증가폭과 비교할 때 (지난달 종사자 수 증가폭은) 대폭 축소된 수준"이라며 "코로나19에 의한 경제활동 위축이 고용상황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충격은 종사상 지위를 막론하고 가해진 양상이다. 지난달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6만6000명(1.1%), 임시일용근로자는 3만8000명(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타종사자는 4만1000명(-3.5%) 감소했다.

이러한 상용 증가폭도 유례가 없는 수치로, 전년동월에는 49만7000명, 전달에는 26만1000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를 면치 못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점업이 5만3000명(-4.2%) 감소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했다. 여행업이 포함된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 1만2000명(-1.0%) 감소, 공연업을 포괄하는 예술스포츠업에서도 6000명(-2.0%) 감소를 기록했다.

다만 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전년동월(51.1만명) 대비 9만8000명 증가로, 증가율이 0.6%에 불과했다.

그나마 300인 이상에서 전년동월(8.7만명) 대비 6만5000명 늘어나며 증가율 2.3%로 선방했으나, 영세 사업체의 둔화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어 보인다.

특히 임 차관은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이 전월(22.8만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11만명에 그쳤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종사자 수 증가폭이 더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충격은 다른 부문에서도 계속해서 감지됐다.

2월 중 이직자가 전년동월대비 20만8000명 증가하면서 8만1000명 늘어난 입직자 증가폭을 넘어선 것이다. 이직자 증가는 주로 숙박음식점업(5만명), 도소매업(2.8만명),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1.9만명) 등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종사자 수 증가세도 전반적으로 둔화됐다.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경기, 서울, 대전 등 순으로 축소됐으며, 대구와 경북, 경남은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감소가 이뤄졌다.

사태 장기화에 따라 종사자 수 감소는 이달 들어 전국 규모로 확대됐을 것으로 확실시된다.

임 차관은 "2월 말 통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반영돼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3월 중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통계를 통해서 더 반영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예측했다.

'꿈의 직장' IT업계 직원 연봉은

게임사 넷마블, 9300만원으로 가장 많아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정보기술(IT) 업계의 지난해 연봉이 공개됐다. '양대포털' 네이버와 카카오는 실적 차이와 달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같은 8000만원대였다.

지난 30일 공개된 2019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등기이사를 제외한 네이버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은 8455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8년 평균인 7706만원보다 약 70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2017년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것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전체 직원은 3434명이고, 이 중 남직원이 2210명, 여직원이 1224명이었다. 남직원의 평균 연봉은 9106만원, 여직원은 7292만원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의 경우 지난해 평균 연봉이 8000만원으로, 전년도(8400만원)보다 400만원 가량 낮아졌다. 이 역시 회사의 실적과 관련이 있는데, 카카오는 지난 2017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6%나 감소했다. 영업이익의 감소폭에 비하면 직원들의 연봉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경우 남직원이 1533명, 여직원이 1001명으로 네이버에 비해서는 여직원의 비율이 높았다. 다만 평균 연봉의 경우 남직원이 9200만원, 여직원 6200만원으로 차이가 더 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내 복지 등의 이유로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 2월 잡코리아의 설문한 결과 신입구직자의 올 상반기 취업목표 기업 1위가 카카오(14.6%), 4위가 네이버(11.0%)였다.

그러나 지난해 이 두 기업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은 곳은 넷마블이었다. 2018년에도 이미 평균연봉 9300만원을 기록했던 넷마블은 지난해에는 400만원이 더 오른 평균 9700만원이었다.

남직원(483명)들의 경우 평균 연봉이 1억1200만원을 기록했다. 여직원(294명)의 경우 평균 7400만원으로 남직원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타 기업과 비교하면 최상위권이다.

IT 업계 '연봉킹' 김택진 대표가 이끄는 엔씨소프트의 경우에도 평균 연봉이 8600만원으로 네이버, 카카오를 상회했다.

다만 이는 전년도 평균 연봉(8952만원)보다는 떨어진 수치다. 김택진 대표 역시 전년도 138억3600만원에서 43억8600만원이 감소한 94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성과연도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35% 감소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펭수빵', 출시 2주 만에 100만개 팔렸다… '펭수씰' 흥행 돌풍

4월 공식 SNS서 '인증 행사'…한정판 '펭수씰 북' 증정

SPC삼립이 선보인 '펭수빵'이 출시 2주 만에 100만개가 팔려나가며 '펭수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 같은 기간 다른 신제품 판매량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SPC삼립은 EBS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를 모델로 만든 '펭수빵' 5종이 출시 2주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펭수빵의 인기 비결은 제품 안에 든 '펭수 띠부띠부씰'이다. SPC삼립은 빵 제품 안에 펭수의 명언과 짤방 이미지를 담은 띠부띠부씰 71종을 포함했다.

펭수빵에 이른바 '펭수씰'이 들어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12일 첫 출시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펭수 띠부띠부씰을 인증하는 게시글이 1000여건 올라오는 등 '펭수빵 열풍'이 시작됐다.

특히 펭수빵은 출시 직후부터 세븐일레븐, GS25 등 편의점에서 상온 빵 판매 순위, 발주량 상위권을 차지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SPC삼립은 펭수빵이 '국찌니',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를 잇는 히트상품 반열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PC삼립은 펭수빵의 인기에 힘입어 디저트 브랜드 '카페스노우'에도 펭수 캐릭터를 적용한 후속작을 잇달아 출시했다. 제품명은 '신이 나! 크림치즈슈'와 '펭러뷰 쇼콜라케익' 2종이다. 가격은 각각 2600원, 5500원이다.

또 펭수빵 100만개 판매를 기념해 4월 초 중으로 삼립 공식 SNS 채널에서 '펭수씰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1234.kr' 숫자 도메인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

1일부터 '1234.kr'과 같이 숫자를 사용한 2단계 도메인을 쓸 수 있게 된다. 2단계 도메인은 '.co', '.go', '.or'과 같은 중간 단계가 없는 주소체계를 말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4월1일 오전 10시부터 2단계 숫자 도메인 등록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이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해 홍보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2단계 숫자도메인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단계 숫자도메인은 '119.kr', 'kisa.kr'과 같이 3자~63자 범위에서 등록할 수 있다. 숫자도메인 신청 희망자는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17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4월1일 오전 10시부터 상표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각 국가 도메인 등록대행자에 '도메인 이름 등록신청서'를 먼저 낸 사람이 등록되는 선접수, 선처리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및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천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

1위 이통사 SKT, 직원 연봉도 1위

국내 이동통신 3사중 시장 1위인 SK텔레콤 직원들의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직원 1인 평균 연봉은 1억1600만원으로 3위 사업자 LG유플러스의 직원 1인 평균연봉 8000만원보다 3600만원 많았다.

31일 각 이통사가 공개한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은 2019년 12월31일 기준으로 총 54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인 평균 연봉은 1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성 직원 평균연봉이 1억2400만원, 여성 직원 평균연봉이 8000만원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4400만원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18년 대비 평균연봉이 동일했다. 직원 개개인간 연봉 인상률은 다를 수 있지만 평균 연봉은 '동결'이다.

SK텔레콤의 미등기임원 평균 연봉은 4억7700만원이다. 평사원일때 억대연봉을 받다가 임원을 달면 평균 4억원대 연봉을 받는 셈이다.

KT는 총 2만33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2019년 연봉은 1인평균 8500만원 수준이다. 남성 직원의 평균연봉은 8700만원, 여성 직원의 평균연봉은 7500만원으로 SK텔레콤보다 남녀 임금 격차폭이 좁았다. KT 직원은 전년도에 비해 1인 평균 연봉이 400만원 인상됐으며 임원 평균연봉은 전년 2억8200만원에 비해 9300만원 급등했다. KT의 미등기임원 평균 연봉은 3억7500만원이다.

LG유플러스는 이통3사중 직원들의 1인 평균연봉이 가장 낮았다. 이 회사 직원들은 총 1만70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연봉은 8000만원이다. 남성직원은 평균 8400만원, 여성직원은 평균 6100만원으로 이통3사중 남녀 직원간 연봉격차가 가장 컸다.